

후대 詩文에 투영된 退·栗 형상*

이택동**

<차례>

- I. 문제 제기
- II. 후대 시문에서의 退·栗의 위상
- III. 退·栗 형상의 몇 국면
 - 1. 花石亭-追念의 동심원
 - 2. 꿈결에서의 感應
 - 3. 進退를 사이한 번민
- IV. 마무리

<국문초록>

퇴계와 율곡은 달리 짝할 이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지성사에 태두로 자리하며 심원한 영향을 끼친 인물들이다. 그러므로 이들에 대한 후대인들의 언급은 질과 양에 있어 심도 깊고 풍성하게 제출되어 있다. 퇴계와 율곡을 정점으로 하여 형성된 당색과 학파로 인하여 우리 지성사를 통해 가장 본격적이고 지속적이며 치열한 논전이 전개되기도 하였다.

본고에서는 특히 후대인들의 시문에 투영된 퇴계와 율곡의 모습을 몇 가지 항목으로 정리하여 살펴면서 그 의미를 고구하려 하였다. 전에 살았던 공간을 읊으며 추념에 젖고 있는 작품군과 現夢을 통한 感發을 노래하는 작품군 마지막으로 진퇴를 사이한 번민이 투영된 작품군이 바로 그것이었다. 연구자의 시선에서 놓친 작품도 물론 많을 것인 바, 이에 대해서는 후고를 통해 보완할 예정이다.

종전까지는 퇴계와 율곡을 주로는 이학자로서 읽어왔으며 문인으로서의 면모에 대해서도 그 의미와 위상이 검토되어 왔다. 그러한 검토는 물론 퇴계와 율곡에 대한 이해에 커다란 진전을 가능케 한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연구사의 축적은 그것

* 본 연구는 2007년도 가톨릭대학교 교비연구비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가톨릭대 인문학부 국어국문학전공 교수.

대로 지속되면서, 본고에서 살핀 바와 같은 논의가 첨가된다면 퇴계와 율곡에 대한 이해에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지성사에 대한 이해에도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退溪 栗谷 梅花 夢 行藏

1. 문제 제기

각기 동방 理學의 태두로 후대인들의 기림과 칭예를 한 몸에 받아온 인물인 退溪 李滉과 栗谷 李珣는 조선조 사회의 전개와 성숙에 심원한 족적을 남긴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退·栗 이후의 조선은 정치 문화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퇴계와 율곡의 자장 속에서 성장해 갔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또한 퇴계와 율곡은 개체로서도 다대한 의미를 지니지만 학통과 당색이 교호적으로 작용한 영남학과와 기호학파의 종장이란 점에서도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개인으로서 그리고 학파의 종장으로서 한국 사회의 전개에 끼친 영향은 긍정적인 기여로 발견되기도 하였으며 때로는 부정적인 말폐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퇴계와 율곡이란 두 당사자의 의도와는 달리, 조선 시대의 현실 정치는 각기 퇴계와 율곡을 정신적인 종장으로 모신 동인과 서인의 갈등과 쟁투로 점철되었던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물론 당대의 당쟁이 지니는 긍정적인 영향력 역시 없지 않겠으나, 당색을 사이한 반목과 불화가 당대 현실에 부정적인 그늘을 드리운 것 또한 분명하다 하겠다.

이처럼 달리 짚할 바 없는 문제적인 인물들이기에 퇴계와 율곡은 후대인들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철학적인 논변에서부터 時務에서의 해법 그리고 삶의 과정에서 당면하는 갈등이나 불화 등에 대

해서도 후대인들은 퇴계와 율곡에게 指南이 되어주기를 요구해 온 것이다. 退·栗 이후의 조선사는 전영역에 걸쳐 그들을 전범으로 삼고 그들이 걸은 길을 그대로 되밧아 걷고자 한 學究들이 행한 분투의 집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전통적인 이학자뿐 아니라 이른바 실학자로 일컬어지는 조선조 후기 학인들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어서 星湖 李瀼이나 茶山 丁若鏞 등도 『陶山私淑錄』 등을 남기며 존송의 念을 표하고 있는 것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 退·栗은 지성계 내부에서만 운위되었던 인물에 머물지 않았으니 조야에 두루 그 존재를 폭넓게 각인시키며 사표로 자리하고 있기도 하다. 본고에서는 저와 같은 위상을 지닌 퇴계와 율곡을 두고 그들을 대상으로 한 후대의 시문들은 과연 여하히 그들을 이해하여 자리매김하고 있는지를 몇 갈래로 항목화하여 살펴기로 한다. 이어지는 장에서는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예비적으로 당대의 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退·栗의 위상을 검토하기로 한다.

II. 후대 시문에서의 退·栗의 위상

조선조 사회에서 退·栗이 차지하는 비중은 韃靼가 필요치 않을만큼 자명한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이 자리에서는 퇴계와 율곡의 후대에 산출된 詩文이나 관련 자료를 통해 그들의 위상을 확인해 보려 한다. 첫 번째로 검토할 자료는 야담집에 기재된 퇴계와 율곡의 면모이다. 조선 중기의 일록에서 배태되었다 할 수 있는 이야기 문학은 조선 후기에 진입하며 야담의 성행으로 활황을 보이고 있었다. 야담집에 取擇된 이야기들은 조야의 자료들이 記傳되며 당대적 인식의 대부분이 저수지처럼 모여든 현상이라 할 수 있겠는데¹⁾, 그렇다면 이러한 야담집에 투영된 退·栗의 모

습은 바로 당대로서는 보편적인 退·栗 이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조선 후기의 본격적인 야담집 중에서도 집대성적인 성격이 가장 강한 동야회집에 기재된 퇴계와 율곡의 상을 살피기로 한다. 각각의 이야기는 「仙女定室降儒賢」과 「老翁禳星話天數」라는 표제로 제시되어 있는 바, 본 내용은 야담집의 속성에 건인되어 흥미와 재미를 줄 수 있는 열개로 구성되어 있으니 이 자리에서는 外史氏에 의해 행해진 論斷을 통해 당대에 보편적으로 구성된 퇴계와 율곡의 상을 그려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외사씨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하늘이 大賢을 낚는 데는 반드시 기이한 징조가 있었으니 二龍이 집을 에워싸거나 五星이 마당에 모이는 것은 예로부터 그러한 것이었다. 宋나라 程子和 朱子 이후로는 正學이 전수되지 않았는데 하늘이 상서로운 운수를 열어 우리의 도가 동방으로 나아가고 퇴계는 수백년 뒤에 태어나 능히 伊洛의 바스러진 사업을 찾아 斯文으로 하여금 다시금 명철하고 심원하게 하였다. 태어날 때로부터 凡人들과는 달랐으니 仙姬가 알려져 산실을 정해주었으니 사적이 대단히 신기한 바, 어찌 공자가 천상으로 기린을 抱送한 상서로움이 아니겠는가.(外史氏曰, 天生大賢, 必有奇徵異兆, 二龍之繞室, 五星之聚庭²⁾, 自昔然矣. 自宋程朱以後, 正學失傳, 天開瑞運, 吾道遂東, 退溪生於屢百載之後, 而克尋伊洛之墜緒, 使斯文煥然復明奧, 自降生, 異於凡人, 仙姬之告, 定以尊室, 事甚神奇, 豈非孔子抱送天上麒麟之瑞耶.)³⁾

1) 일록과 야담의 상관관계와 야담의 전승 과정에서의 記傳 양상에 대해서는 줄고, 「기술 서사물의 직조와 전승」(한국한문학회, 『한국한문학회』 제 17집, 태학사, 1994. 352-357면.)을 참조할 수 있다.

2) 영인본에 奎라고 쓰였으나 庭의 오기로 보여 고쳐 적고 옮겼다.

3) 정명기편, 『東野彙輯上』, 보고사, 1992. 30면 참조.

성인의 출생에는 기이한 조짐이 함께 한다는 언급은 역시 해당 아담의 줄거리에 견인된 논평일 것이다. 중요한 것은 宋學이, 오래도록 墜緒된 처지를 면하지 못하다가 수백년 뒤에 이르러 퇴계에 의해 다시금 찬연하게 명석하고 심원함을 회복하였다는 언명이다. 정작 중국에서는 失傳된 程朱의 正脈이 퇴계에 의해 회복되었다고 관념하고 있으니 정자와 주자를 잇는 도통의 중심이라고 퇴계를 관념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출생 과정에서의 상서로운 조짐을 공자의 神異한 이력과 포개고 있으니 퇴계에 대한 이해의 일단을 살필 수 있다 하겠다.

율곡을 그린 『東野彙輯』의 이야기는 「老翁禳星話天數」라는 표제로 묶여 있는 바, 퇴계를 그린 이야기와는 몇가지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곧 퇴계를 정돈하고 있는 대목에서는 탄생에 관한 화소로 이야기 전체가 수렴되고 있는데 비해 불교예의 입문, 퇴계의 기림을 받음, 십만 양병설 주장 등 생평의 여러 구비를 나열하고 있다는 편차를 보이고 있다. 여기서도 外史氏의 논평을 주로 하여 살피도록 한다.

외사씨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율곡의 道學과 才識은 우리 동방의 大賢인데 養兵에 대한 논의에는 또한 감식의 명석함이 있다. 만약 兵亂을 감당하여 대처하게 하였다면 반드시 변란을 그치게 할 계책이 있었을 것인데 하늘이 우리 나라에 복을 주지 않아 수명에 인색하였다. 푸닥거리하는 일은 옛날에도 있었지만 武侯의 재주로도 五丈原에서의 재앙을 피하지 못하였으니 河魁星이 떨어진 것은⁴⁾ 大運이 관련된 바이거늘 어찌할 수가 있겠는가. 우계가 율곡을 일컬어 산하의 정기로 태어난 삼대적의 인물인데 이 세상에 유위로운 일을 하지 못하고 뜻 품은 채 歿하였으니 진실로 한스럽다고 하였다. (外史氏曰, 栗谷之道學才識, 卽我東大賢, 而養兵之論, 又有鑑識之明, 若當龍蛇之變, 則必有弭亂之策, 而天不祚宋, 竟嗇其壽. 祈禳之法, 古亦有

4) 이순신의 殉死를 예견한 불길한 징조였다.

之, 以武侯之才, 未能避灾於五丈原, 河魁之墜, 大運所關奈何, 牛溪稱栗谷, 山河間氣三代上人物, 不能有爲於斯世, 齋志而歿, 誠可恨云.)⁵⁾

우선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퇴계에 대한 논평이 동방유교의 宗匠이라는 사실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음에 비해 율곡에 대한 논평은 당연히 道學者로, 그리고 재주와 식견을 갖춘 인물로, 나아가 십만양병설을 주창한 경세가로서 立像하는 등 다양한 측면의 율곡을 입체적으로 포섭하고 있다는 점이다. 퇴계에의 논평이 宋學의 정맥을 이었다는 단선적인 언명이었음에 비해 經學과 經世를 아우르고 있는 율곡에 대한 이해를 피력하고 있는 것이다. 과란으로 점철된 사화의 시대를 살아가며 자신의 혈육이 직접 그 희생으로 스러져 간 상황을 목도한 퇴계이기에, 한편으로 외향적이라기보다는 내면으로 침잠하는 퇴계의 성향에 비추어볼 때 퇴계에 대한 논평이 단성적이라는 사실은 충분히 수긍될 수 있겠다.⁶⁾

율곡의 경우에는 理氣論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견해를 제출하면서 동시에 현실을 응시하며 개선을 향해 매진하였다는 이력을 논평은 정확히 짚어내고 있다 하겠다.⁷⁾ 또한 저러한 응지를 품고 있었음에도 수를 누리지 못하고 타계하여 누란의 위기에 처한 국역에 대처해 내지 못한 정황에

5) 정명기 편, 『東野彙輯上』, 보고사, 1992. 35면-36면 참조

6) 한형조 선생 역시 유교적 은자로 퇴계의 특징적 면모를 정돈하고 있기도 하다.(「퇴계, 혹은 유교적 은자의 길」(한형조 지음, 『왜 조선유학인가』, 문학동네, 2008. 265-305면 참조).)

7) 동아휘집 논평부가 적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퇴계와 율곡의 편차를 다시 말하자면, 퇴계의 명철보신과 율곡의 경세에의 적극적인 의지를 최근의 연구서에서도 언급되고 있어 주목을 요한다. 한형조 교수는, 율곡은 경전의 해석을 둘러싼 퇴계의 조예에 감탄했고, 남명의 몸가짐과 드높은 기상을 기렸지만, 둘 다 정치적 문제를 다루는 지식과 기술은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했다고 정돈하고 있는 바(한형조 지음, 『조선유학의 거장들』, 문학동네, 2008. 68면 참조), 율곡과 퇴계의 특정 층위의 편차에 대한 타견인 것으로 보인다.

대한 안타까움을, 특히 牛溪의 만사를 원용하며⁸⁾ 괴력하고 있다. 뜻한 바를 이루지 못하고 早逝한 재능에 대한 회한이 겹으로 토로되고 있는 것이다.

아무튼 살핀 바와 같이 동아회집 논평부는 퇴계의 경우에는 동방 유학의 종장이라는 사실에 집중하여 평가하고 율곡의 경우에는 재능과 식견의 다채로움과 早逝에 대한 안타까움이 주조음을 이룬다는 편차는 없지 않지만 공통적으로 칭예와 외경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에서 광범위한 대중성을 확보한 야담집에 투영된 退·栗을 두고 당대적 평가를 살핀 바 아래에서는 율곡과 퇴계의 작품을 함께 次韻하고 있는 후대인의 시편을 통해 또다른 측면에서, 퇴계와 율곡의 자장을 확인 하도록 한다.

숙종에서 영조 연간을 살았으며 학문적으로는 洛論으로 정치적으로는 老論系 峻論으로 평해지고 있는⁹⁾ 朴弼周의 작품이다. 『黎湖集』이 작품의 배열에 연도의 착종이 없다는 해제에 의거한다면¹⁰⁾ 학문적인 유년에 배움에의 각오를 다지는 自警의 정조를 드러낸 작품이라 할 수 있겠다.

이 도가 사람에게 본디 의아함이 없으니,
무턱대고 다닌다 하여 어찌 내가 오래도록 떨어지랴.
지금부터 노력하여 앞선 자취를 찾는다면,
성실과 거짓을 응당 상제께서 아시리라.

8) 甲申正月, 栗谷先生卒, 先生歎曰, 栗谷於道體, 洞見大原, 其所謂天地之化無二本, 人心之發無二原, 理氣不可互發等語, 皆實見得, 真是吾師, 誠山河間氣, 三代上人物, 不能有爲於斯世, 齋志而歿, 慟矣夫.(『牛溪先生年譜』卷之一, 牛溪先生年譜附錄, 行狀右議政李廷龜撰. 한국문집총간 영인본 43권 285면 참조.)

9) 민족문화추진회 편, 『한국문집총간 해제 5』, 경인문화사, 2003. 49면 참조.

10) 민족문화추진회 편, 위의 책. 50면 참조.

(斯道於人本不疑, 冥行胡我久相離. 自今努力尋前去, 誠僞應須上帝知.)¹¹⁾

배움에의 각오와 권면의 뜻을 立春日에 되새기고 있는 작품으로 노론계 준론으로 평가되는 인물이 퇴계와 율곡을 공히 尊信해야 할 사표로 상정하며 분발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은 유념되어야 한다. 숙종조를 거쳐 영조 연간을 경과한 즈음이라면 정치 공간의 현실에서 이미 南人과 老論이 회복할 수 없는 宿怨으로 쟁투를 벌리고 있었던 형국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럼에도 해당 시편에서는 퇴계와 율곡을 공히 차운하고 있으니 양자를 법받아야 할 전범으로 동시에 상정하고 자신의 분발을 기약하고 있는 것이다. 黨色의 엇갈림과는 별개로, 理氣에 대한 학술적 견해 차이와도 별개로 退·栗이 공히 뒤받아야 할 전범이자 역할모델로 자리하고 있었던 당대의 사정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작품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퇴계와 율곡의 심원한 영향력은 국내만으로 한정되는 것도 아니며 더더욱 주목을 요한다. 일본의 유학자가 퇴계를 尊崇하는 시편을 제출하고 있으니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면서까지 퇴계나 율곡을 기리는 시편이 산출되고 있는 셈이다. 아래 시편은 碩水라는 인물이, 丸山重俊이 한국에 머물며 멀리서 『退溪言行錄』을 부쳐 보여준 것에 대해 시로써 사례한(<丸山重俊在韓國, 遠寄示退溪言行錄, 詩以謝之>) 작품이다.

평소에 퇴계의 풍모를 가장 흠모하였더니,
학술이 순수하여 절로 (다른 이들과는) 같지 않다.
한편의 언행록 보배롭고 귀중하게 간진함에,
사람으로 하여금 우러르고 찬미케 하는 감회가 무궁하다.

11) <立春日, 次退溪·栗谷韻, 爲祝語, 其二>, 『黎湖先生文集』卷之一(문집총간 영인본 196권 9면).

(平生最慕退溪風, 學術純然自不同, 珍重一編言行錄, 使人仰讚感無窮.)¹²⁾

과문한 대로 일본 유학, 특히 주자학의 정립에는 퇴계의 영향력이 압도적이었다고 알고 있다. 이학적인 성취를 물론이려니와 居敬窮理에 매진하는 퇴계의 품성에 대한 경사도 대단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위의 시편은 저러한 정황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작품이라 할 수 있겠는데, 퇴계의 言行錄을 보배롭고 귀중하게 실천을 향한 공부길에 指南 삼으며 그와 동시에 퇴계의 풍모에 대한 절절한 양모와 칭예의 정조를 보여주는 모습이 작품을 통해 뚜렷하게 확인되는 것이다.

논의를 정리하자면 야담과 후대의 시편에 투영된 退·栗의 상을 살피면서 우리는 퇴계와 율곡이 사회 전분야에 걸쳐 달리 짝할 이가 없을 정도로 심원한 영향력을 확보하였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바, 나아가 나라 사이의 경계도 넘어서는 영향력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선이해를 바탕으로 장을 넘겨 율곡과 퇴계를 대상으로 한 시문에서 그들이 여하히 형상화되고 있는지를, 후대인이 남긴 시편에 투영된 모습을 통해 몇 가지로 항목화하여 고찰하기로 하겠다.

Ⅲ. 退·栗 형상의 몇 국면

1. 花石亭-追念의 동심원

앞 자리에서 검토할 대상은 화석정을 읊고 있는 작품이다. 화석정은 율곡이 제자들과 더불어 학문을 강론하던 정자인데 화석정을 노래한 작품

12) 阿部吉雄, 『日本朱子學と 朝鮮』, 동경대학출판회, 1971. 465-466면에서 재인용.

들에서 율곡에 대한 후대인의 시적 형상이 여하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피기로 한다. 아래 시편은 광해군과 현종 년간을 살아간 朴長遠의 <화석정을 지나다가 율곡선생에 대한 회포가 일어(過花石亭, 有懷栗谷先生)>란 작품이다.

정자의 명칭은 화석정인데 지금에 이르도록 율옹을 일컫고 있네.
옛 터는 적수에 임해 있고 나그네는 고아한 품모에 읊한다네.
뜻은 삼대를 회복하려 하였는데 관직은 찬성에 그치고 말았네.
정명도도 복이 없다 탄식하였는데, 나는 우리 동방을 그렇다 여긴다네.
(亭子名花石, 于今說栗翁. 古基臨積水, 行客揖高風.
志欲回三代, 官纔止貳公. 伯淳無福嘆, 吾亦爲吾東.)¹³⁾

율곡의 고아한 품모에 대해 경의를 표하고 있다. 삼대의 至治를 만회하려는 응지를 지니고 있었으며 조정에서의 官階가 다만 貳公의 지위에 머물고 만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피력하고 있다. 율곡에 대한 시적 자아의 이러한 인식은 율곡을 두고 상정될 수 있는 다채로운 면모 중 특히 관료로서의 經世에 강음부호를 두고 있다 할 수 있겠다. 율곡이 삼대의 至治를 회복하려는 포부를 지녔으며 그러한 포부를 현실화할 수 있는 蘊蓄이 있었음에도 현실적인 정황은 그러한 온축을 실현할 만한 위치에 오르지 못했음을 애석해 하고 있는 것이다. 율곡을 두고 상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항목 중 특히 관료로서의 經世에 주목하고 있는 것은 十萬養兵說 등에서 확인되는 현실 정치에서의 치적에 유념하고 있는 작품이라 할 수 있겠다.

작품 끝부분은 金集의 <栗谷先生墓誌銘>에 쓰인 글귀를 원용하고 있기에¹⁴⁾ 비단 작품을 쓴 久堂의 개아적인 심회의 토로에 머무는 것이

13) 『久堂先生集』卷之三. 한국문집총간 121권 61면.

아니라 율곡에 대한 당대 사람들의 보편적인 평가를 보여주는 것이기에 주목을 요한다. 『愼獨齋集』에 의하면 송나라 사람들의 말에 백순이 복을 누리지 못한 것은 이 세상에 복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더니 이 말은 선생을 두고 한 말이기도 하다는 묘지명의 기록은, 그대로 율곡에 대한 후대인의 평가를 집약하여 보여주는 자료인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다. 묘지명의 핵심을 시적으로 표현하면서 아파하고 있으니 그 율림이 다대하다 하겠다. 살핀 바와 같이 화석정은 율곡을 추념하는 공간 중 대표성을 지니는 처소라 할 수 있다. ‘당대의 진정한 기상을 살펴 보려면 온 강의 풍월이 끝없이 넓디 넓구나(看取當時眞氣象, 滿江風月浩無邊(<登花石亭, 有懷栗谷先生, 書示李君厚址>, 『文谷集』卷之五)’와 같은 구절을 통해 전형적으로 확인되듯 화석정은 율곡을 표상하는 지리적 상징성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이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은 임진강 온통을 휘감고 있는 風月에서 율곡의 기상을 확인하는 시인의 시선에는, 의식하고 있었던지 혹은 의식하지 못하는 차원인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율곡 사유의 핵심항인 浩然之氣를 작품 속에 寓意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되어야 한다.

2. 꿈결에서의 感應

퇴계를 대상으로 형상화된 후대의 시편들이 가지는 특징으로 단연 이채로운 것은 퇴계를 꿈에서 보고 쓰여진 작품들이 적지 않은 빈도로 산출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정 개인이 여러 편의 작품을 시기를 달리하며

14) 송(宋) 나라 사람의 말에 ‘백순(伯淳 정명도(程明道))이 복을 누리지 못한 것은 이 세상이 복이 없는 탓이다.’고 했다더니, 이 말은 선생을 두고 한 말인 것 같다(宋人有言曰, 伯淳之無祿, 天下之無祿, 其謂是歟(『愼獨齋先生遺稿』卷之九, <文成公栗谷李先生墓誌銘>. 한국문집총간 영인본 82권 375면)).

제출하고 있기도 하며, 꿈 속에서 感發받은 바를 적어 내리기도 하는 등 구체적인 양상이나 정조에 있어서도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인조와 숙종 연간을 살아갔으며 葛庵 李玄逸과 교류한¹⁵⁾ 一庵 辛夢參의 작품을 살피기로 한다. 일암의 경우 우선 문집 연보를 통해 작품의 창작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작품에 并序를 첨부하고 있어 작품이 쓰인 정황을 비교적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愚伏의 작품을 화윤하였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기에 이러한 유형을 개관하는 데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첫 번째 작품에 대해 연보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숙종 22년 丙子(선생이 49세였다) 2월 10일 밤의 꿈에 퇴계선생을 배알하였다.(鄭愚伏이 꿈에 朱晦庵을 모시고 흠자운에 화답한 작품을 지었는데 문집 속에 있다)¹⁶⁾

연보에서 확인되듯 꿈에 퇴계선생을 배알하고 쓴 작품에는 小序를 첨부하고 있어 작품이 쓰인 정황을 짐작케 한다.

이월십일 밤, 꿈에 퇴계선생을 배알하였는데 金, 功, 信 세 글자의 말로 격려하심이 있었다. … 아마도 金은 지극한 보배이고 道義는 至寶 중에서도 至寶이니 그것이 보배인 줄 알면서 보배로이 여기는 사람은 반드시 간직해 지키려는 공력이 있을 것인데, 사람의 믿음이 미치는 자들은 드물다.(二月十日夜, 夢拜退溪先生, 有以金功信三字語勉焉. … 蓋金者至寶也, 道義至寶中至寶也, 知其寶而寶之者, 其必有持守之功, 而人之信得及者鮮矣.)¹⁷⁾

15) 민족문화추진회 편, 한국문집총간 해제 4, 경인문화사, 2003. 258-259면.

16) 二十二年丙子, 先生四十九歲, 二月十日夜, 夢拜退溪李先生. 有和鄭愚伏夢侍朱晦庵欽字韻, 在集中(『一庵集』「年譜」. 한국문집총간 영인본 158권, 325면).

17) <夢拜退溪先生 并小序○丙子>(『一庵先生文集』卷之一, 한국문집총간 영인본

一庵은 일찍 퇴계의 문하에서 배우지 못했음을 안타까워 하고 있는 바(愧不得以早承誨於先生之門矣)¹⁸⁾, 짐작컨대 평상시에도 퇴계를 향한 향념이 대단한 인물이었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정황에서 퇴계가 現夢하여 가르침을 내린 것을 작품화하고 있는 것이다. 퇴계는 金과 功과 信이라는 세 글자로 깨우침을 주려 하였는 바, 그 의미를 직접 풀어주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꿈에서 깨어나 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골몰하다가 ‘성인은 金 중의 金이라고(聖人金中之金)’ 한 대목과 ‘금중의 金은 곧 천명이 진실로 그러한 바(金中之金, 乃天命之固然)’라는 대목 그리고 ‘도의의 金을 이룬다(成道義之金)’는 대목 등과 같은 주자의 언명을 상기하며 퇴계의 가르침이 던진 유장한 의미를 깨우치게 된다.

의미망을 정돈하자면 金과 道義는 至寶라는 측면에서 동일한 함의를 지닌다. 그렇다면 도의가 보배임을 알고 보배롭게 여기는 사람은 반드시 지니고 간직하려는 공력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곤혹스러운 문제가 대두하게 되니 다음과 같은 점이 그것이다. 눈에 보이는 金이 至寶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道義가 至寶 중에서도 가장 으뜸에 자리하는 지보라는 사실을 알고 믿는 이는 많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 퇴계는 일암을 향해 도의가 가장 으뜸인 지보라는 사실을 신뢰하고 居敬에 힘쓰라는 메시지를 전달했고 이에 일암은 그 진의를 가감없이 了解하여 학문예의 정진을 다짐하고 있는 것이다. 꿈 속에서 이루어진 저와 같은 敎學의 기쁨을 ‘진실되고 완곡한 묘결을 전수받았으니 얼마나 바라던 바인지(幸受丁寧眞妙訣)’라는 시구를 통해 벽찬 희열로 담아내고 있다. 한편 퇴계의 현몽은 단발로 그친 것이 아니라 시기를 격해 이어지고 있기도

158권 229면)

18) 위의 책, 같은 곳.

하니 더욱이나 퇴계에 대한 일암의 정서적인 교감의 폭이 깊다고 할 수 있겠다.

이와는 다른 측면에서도 이 작품의 의미는 음미되어야 한다. 기실 배움에 갓 입문한 초학자라면 巨儒에 대한 존숭의 념을 표하는 데에 인식할 이유가 없을 터이니 저와 같은 시편이 커다란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고도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자신의 정체성이 굳어지게 되는 장년기나 노년기라면 사정이 달라진다. 쉽사리 대상을 畏敬하거나 상대를 許與하기가 쉽지 않아지는 시기인 것이다. 통상적인 사정이 이러한데 해당 시편은 一庵이 환갑을 넘기고 쓰였기에 예사로이 보아 넘길 수 없을 듯하다.¹⁹⁾

한편 유념되어야 할 또다른 사실은 一庵이라는 특정 개인에게만 국한하여 이러한 시편이 제출되었던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다른 자리에서 살피겠지만 栢潭 具鳳齡이나 知退堂 李廷馨에 의해서도 一庵과 유사한 시편이 제출되고 있는 바 이러한 사실은 우리 지성사에 드리운 퇴계의 압도적인 영향을 짐작케 하기에 충분한 방증이라 할 수 있겠다.

작은 못에 물은 仙溪길과 닿아 있고,
꿈 속에서도 자상한 경책이 새롭구나.
(小潭水接仙溪路, 夢裏丁寧警策新.)²⁰⁾

평생토록 유림의 종장을 알지 못했음을 恨하면서,
풍모와 지취를 책으로나 추구했네.
정성에는 능히 감응이 있어서,

19) 선생이 61세 때 3월 3일 밤, 꿈에 퇴계선생을 배알하고 6일 뒤 밤에 또 꿈을 꾸(先生六十歲, 三月三日夜, 夢拜退溪先生, 越六日夜又夢(『一庵集』「年譜」, 한국문집총간 영인본 158권, 326면).) 정황을 <夢見退溪先生 並小序○丁亥>(『一庵先生文集』卷之一, 한국문집총간 영인본 158권 230면)라는 작품을 통해 형상화하고 있다.

20) <夢退溪先生>, 『栢潭先生文集』卷之二(한국문집총간 영인본 39권 41면).

한밤중 꿈에 주공을 뵈니 어찌나 다행인지.

(平生恨不識儒宗，風旨追求簡冊中。可是精誠能感應，三宵何幸夢周公.)²¹⁾

一庵의 작품과 마찬가지로 栢潭과 知退堂의 시는 꿈 속에서 퇴계를 拜謁하고 가르침을 받은 警策을 가슴 속에 아로새기고 있으니, 거듭 되풀이되지만 퇴계에 대한 당대 학인들의 흠모와 존숭의 념을 미루어 확인할 수 있게 한다 할 것이다. 백담은 특히 퇴계를 꿈에 보고 심회를 토로한 작품이 십여 편을 넘나드는 바, 그 의의에 대해서는 그것대로 별도의 고찰을 요하는 것으로도 보이는데 우선 일별하자면 ‘유림들은 길이 갈려 남북으로 혼미하고, 세상일은 뜬구름처럼 판이하게 변한다네(儒門岐路迷南北。世事浮雲變白靑)²²⁾’와 같은 작품에서는 사림의 붕당에 대한 소회를 피력하며 퇴계의 부제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으며 ‘꿈 속에서 분명히 새겨야 할 가르침 받았는데, 이 몸은 티끌 사이에 떨어져 있구나(夢裏分明奉鑄誨，此身墮在塵埃間)²³⁾’와 같은 시편에서는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塵埃間’을 벗어나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 자책과 회한에 젖어 들고 있기도 하다.

꿈꾸기에 대해서도 심리학적이거나 정신분석학적으로 술한 입론들이 제출되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러한 입론에 기대지 않는다 하더라도 특정한 대상을 꿈속에서 본다는 사실은 대상에 대한 심정적인 경도나 애호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가능하지 않은 일일 것이다. 과연 퇴계를 꿈속에서 배알하고 쓰인 시편들에도 일률적으로 그에 대한 존숭과 외경이 공통적으로 자리하고 있다. 그와 함께 세부적인 변주도 없지 않은 바, 강음 부

21) <夢見退溪先生>, 『知退堂集』卷之二(한국문집총간 영인본 58권 29면).

22) <夢退溪先生>, 『栢潭先生續集』卷之三(한국문집총간 영인본 39권 213면).

23) <夢退溪先生>, 『栢潭先生續集』卷之二(한국문집총간 영인본 39권 205면).

호가 꿈을 꾸는 자신을 향할 때에는 自警을 권면하는 정조나 태만을 자책하는 정조가 제출되고 있으며 강음부호가 꿈 속에 나타난 퇴계를 향할 때에는 흠모의 정조가 주조음을 이루면서도 일그러진 세상을 응시하며 퇴계의 부재를 안타까워 하는 작품군으로 나타나고 있다.

3. 進退를 사이한 번민

기실 進과 退를 둘러싸고 불거지는 고뇌나 번민은 동서고금을 막론한 인간 사회의 항상적인 화두이겠으나 그에 대한 동양 전통 사회에서의 선비들의 고뇌도 절실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사정이 그러했기에 출처를 사이한 갈등은 수다한 시편을 통해 제출되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 退·栗을 유념한 후대의 시편에서도 그에 대한 고민이 토로되는데, 주로 퇴계와 연관된 작품이 집중적으로 산출되어 왔다. 현실 정치에 대해 한사코 거리를 두려 했던 퇴계의 생평 때문인 것으로 이해되는데 매화시와 전별시를 중심으로 그 양상을 살펴도록 한다.

매화시에 투영된 진퇴에 대한 고뇌를 먼저 살피는데 그러한 고민이 작품 속에서 은성적으로 드러난 경우와 그 고민에 직접적으로 응전하고 있는 경우로 나뉘는 바, 전자를 먼저 살핀다. 제시한 시편은 퇴계의 매화시를 차운한 南溪 朴世采의 작품으로 여러 겹으로 음미할 대목을 마련하고 있어 보인다.

창 앞에 한 그루 나무는 寒梅인데, 아마도 춘풍에 玉友가 찾아온 듯
계옹의 맑은 의취와 멋을 떠올리니 천년 뒤에도 사람으로 하여금 머리를
돌리게 하네.

서호로 머리 돌려 노선을 떠올리니 매번 빙예가 봄에 이름을 어여뻐하네.
의구히 매화를 향해 말하노니 비바람치는 도산에선 오래 절현하고 있다네.
(窓前一樹卽寒梅, 疑是春風玉友來. 想得溪翁清意味, 令人千載首重回.)

回首西湖憶老仙，每憐水蕊到春天。依然爲向梅花道，風雨陶山久絕絃。)24)

퇴계를 邵康節과 林逋에 견주고 있는 바, 특히 소강절을 견주어 퇴계를 노래한 착상은 天理詩의 志趣를 매화의 상징성에 추가하고 있는 것이다. 소강절이 저 유명한 <清夜吟>에서 ‘미만한 맑은 의미를, 생각컨대 알 사람 드물다네(一般清意味, 料得少人知)25)’라고 읊었을 때에는 분명히, 우주나 자연에 遍在하고 있는 이법이나 천리를 체득한 사람들이 거의 없는데 자신은 그에 대한 통찰이 있다는 득의로움이 토로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南溪 朴世采는 ‘계몽의 맑은 의취와 멋’이라고 표현하여 퇴계의 정신적인 경지를 소강절이 다다른 지점과 포개어두고 있는 것이다. 곧 도산에서의 퇴계는 매화를 매개로 혹은 매화와 함께, 마치 소강절처럼 魚躍鳶飛하는 자연의 이법을 體化하기도 하고 흡사 林逋처럼 매화와의 서정적인 융합을 이루기도 하는 것이다.

그와 같았던 도산에서의 퇴계와 매화 사이의 合一이 出仕로 인해 훼손을 받게 된다. 이에 도산에서는 거문고를 끊어버린 지 오래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으니 이 대목은 이 자리의 관심사인 進退를 사이한 갈등을 포착하고 있다 하겠다. 매화를 두고, 天理를 집어내거나 서정적인 융합을 노래하면서 동시에 出과 處, 進과 退 그리고 行과 藏을 사이한 번뇌나 갈등이 은성적으로 착색되기도 한 바, 그러한 갈등을 보다 명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谷雲 金壽增의 작품을 중심에 두고 이러한 측면을 살펴보도록 한다.

谷雲은 서울 근처인 石室과 은거지인 華陰을 대비시켜 작품의 의미망을 엮어 내리고 있는데, 자신이 차운했다고 밝히고 있듯이 퇴계 매화시에

24) <次退溪先生憶陶山梅韻 二首>, 『南溪先生朴文純公文正集』卷第一(한국문집총간 영인본 138권 41면).

25) 邵康節, <清夜吟>, 『古文眞寶前集』, 보경문화사, 1987. 10면.

서의 한양과 도산의 대비적 구도를 원용하고 있기도 하다. 石室의 분매에 봉오리가 아름다워 병들어 누웠다가 새벽에 일어나 퇴계의 매화문답시가 우연히 기억나 그 체를 본받아 짓고 있는 작품이다.²⁶⁾ 石室梅와 華陰梅의 양향대립으로 구성된 작품은 자못 유장한 울림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石室과 華陰은 퇴계 梅花問答詩에서의 한양과 도산과 같은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표상되어 있는데 우선 石室梅에서의 石室은 우암 연보에서의 ‘계묘 문정공 청음 김 선생을 양주 도산 석실촌으로 찾아가 뵈었다는(癸卯, 謁文正公淸陰金先生于楊州陶山石室村.)²⁷⁾’ 언급을 통해 볼 때 谷雲家の 세거지인 경기도 양주에 위치하는 공간으로 추정할 수 있다. 물론 華陰은 谷雲이 숨어든 강원도 화천이다.

谷雲은 이렇게 石室이라는 공간과 華陰이라는 공간을 대비시키고 각각의 공간에 매화를 布置시켜 공간이 표상하는 의미와 상징을 대변하게 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문답을 주고 받는 형식으로 작품을 결구하고 있다. ‘華陰에 한 그루 나무 도리어 한바탕 웃음 감내해야 하리, 홀로 산승과 짝하여 시린 해를 넘기고 있으니(華陰一樹還堪笑, 獨伴山僧度歲寒)’와 같은 시구는 石室梅가 華陰梅에게 묻고 있는 작품이다. 궁벽한 시골에 자리하고 있으니 이따금씩 산승들과나 수작하는 華陰梅의 정황을 놀리려는 의도가 깔려있는 작품인 것이다. 그러한 놀림에 대해 華陰梅는 에두르지 않고 정면에서 바로 자신의 정황을 적극적이고 당당하게 자부하고 있다.

고아한 근본은 시끄러운 티끌 자취에 가까이함을 꺼려하여,
맑고 고옴은 적막한 물가가 어울린다네.

26) <石室盆梅, 蓓蕾正妍, 病臥曉起, 偶記退溪梅花問答詩, 遂效其體戲賦>, 『谷雲集』 卷之一(한국문집총간 영인본 125권 146면). 이하로 동일한 곳에서 인용한 작품은 별도로 인용 표시를 하지 않는다.

27) 『宋子大全附錄』卷二(한국문집총간 영인본 115권 203면).

오늘의 行과 藏은 천성을 저마다하는데,
 온 산 풍설 속에 가지 하나에 봄이 움트네.
 (孤根厭近囂塵跡, 清艷端宜寂寞濱. 今日行藏各天性, 萬山風雪一枝春.)

궁벽한 곳에서 외롭지 않느냐는 石室梅의 질문에 華陰梅는 오히려 石室梅의 오염을 걱정한다. 상론하자면 ‘골짜기 구름 깊숙한 곳에 홀로 꽃피운 華陰梅는 伴睡庵 창가에 瘦影을 드리우고 있으면서(嶺雲深處獨開花, 伴睡禪窓瘦影斜)’, 石室梅에게 ‘시커먼 먼지가 매화 등걸을 더럽힐 일을 저어하는 것이다(緇塵一點近苔槎)’. 환향을, 세속에서의 격절을 완곡하게 권면하는 국면이라 하겠다(歸期從此莫教遲, 恐有游塵澆玉姿).

또한 작품에 보이는 行과 藏은 천성을 저마다 한다는 말의 의미는 行이나 藏의 어느 한쪽이 고정되고 어느 한쪽이 폄하되는 관계인 것이 아니라 상황이나 개성에 따라 선택될 수 있는 가치 중립적인 행위라고 말하는 듯하다. 그렇지만 깊은 속내는 결코 그렇지 않으니 ‘藏’을 선택한 자신에 대한 우울한 자부심이 묻어나며 동시에 ‘行’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사려깊은 배려 역시 가미되어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공간은 시정이지만 빙설같은 혼을 지니고 정신적인 소요를 누리고 있다고 石室梅는 또한 대답한다. 石室梅는 華陰梅에게 이야기한다. ‘고상한 풍채가 어찌 세상의 부침과 관여하겠느냐고(清標寧與世浮沈)’. 고답적인 경지를 소유하는 자신은 처한 곳의 여건이나 상황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자궁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황량한 교외에서 오래도록 엉켜 있다고 의아쩍게 여기지 말라(莫訝荒郊久滯淫)’ 언사는 내적 수양의 깊이에 대한 자부심으로도 읽힌다. 원효의 수행이 그러했고 市隱도 있었듯이 자신이 비록 市井 가까이 자리하고 있지만 정신적인 경지만은 결코 훼손되거나 변질되지 않는다는 자부와 득의로움을 읽어낼 수 있다 하겠다.

배열상 石室梅는 ‘우리 도가 어찌 행과 장을 구별하였느냐고 하며’ 자신의 정황을 대변한다(吾道何分行與藏)²⁸⁾. 그렇다. 출과 처에 대한 고뇌가 당대 지성의 삶과 인식을 결정짓는 근본항이었던 것이다. 진과 퇴, 출과 처 그리고 행과 장을 사이한 갈등이나 헐항은 당대인들에게 항상적인 물음일 수 밖에 없을 터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진퇴를 사이한 갈등은 매화를 대상으로 한 작품과 함께 퇴계의 南還에 쓰인 餞別詩를 통해서도 의미망이 검토될 수 있다. 첫 자리에서 살펴야 할 시는 퇴계가 벼슬을 버리고 도산으로 돌아갔다는 소식을 듣고 己巳年에 쓴(<聞退溪先生棄官歸山己巳>²⁹⁾ 牛溪成渾의 작품이다.

서울에는 우리를 분 적어지고, 선비들은 의지할 곳 잃었어라.
대로가 복이 없으시니, 천운이 쇠미한 때를 당하였네.
(京城少宗仰, 士子失所依. 大老也無福, 皇天時運衰.)

해당 작품에서는 퇴계의 남환 때문에 서울에서는 존숭의 대상이 될 사표가 적어지고 그에 따라 선비들이 尊信할 인물이 없어졌음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또한 당쟁으로 점철된 시기와 겹쳐지는 퇴계의 평생을 개탄하고 있는 것이다. 당색의 分岐에도 퇴계에 대한 牛溪의 존숭이 작품 속에 곡진하게 착색되어 있다는 점도 주목을 요한다 하겠다. 아래는 孤潭 李純仁의 작품이다.

28) <右開花梅, 嘲未開梅>와 <右未開梅答>에 대해서는 연전에 고찰한 바 있다. (줄고, 『18세기 매화시 연구』, 성심어문논집 26집, 2004. 213-220면 참고.) 다만 해당 논에서는 퇴계의 매화문답시와 谷雲의 매화문답시를 지나치게 대척적으로 해석하려 한 혐의는 없지 않은 듯하다.

29) 『牛溪先生集』卷之一(한국문집총간 영인본 43권 9면). 이 작품의 번역은 민족문화추진회에서의 국역을 따랐다.

고향이 점차 가까워지고 종남산이 멀어지자,
수심이 없어질 것 같은데 도리어 수심이 생겨나네.
(鄉關漸近終南遠, 可是無愁還有愁.)³⁰⁾

진퇴와 출사를 사이한 퇴계의 번민을 뚜렷이 확인케 한다. 기실 전통 사회의 사대부로서 온축한 경륜을 당대 사회를 위해 펼쳐 보이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당위이기도 하다. 사직에 대한 충성 역시 사대부로서 소홀히 할 수 없는 덕목이다. 사정이 그러하기에 가파른 당쟁 속에서 한사코 현실로부터의 거리두기를 회구한 퇴계이지만 가슴 한 켠에 저러한 측면에 대한 아쉬움이나 회한이 아주 없을 수는 없을 터이다. 해당 작품은 바로 그러한 측면을 간명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서애 유성룡의 ‘세상을 구제한 방책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구름 덮힌 산속에서 발같이할 약속을 어이할 거나(濟世非無術, 耕雲奈有盟)³¹⁾’라는 시편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퇴계 의식의 본령은 숨어사는 살이에 대한 회구라는 것은 또한 분명하다. 서애는 역시 퇴계의 의발제자답게 퇴계의 내면을 곡진하게 짚어내고 있는 것이다. 진퇴를 사이한 갈등으로 頽頽하지만 역시 퇴계의 본령은 행이 아니라 장애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이 대목에서 이채로운 것은 ‘공께서는 매화를 찾아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나는 榮祿을 탐하여 티끌 속에 얼켜 있구나(公欲尋梅返舊山, 我貪榮祿滯塵間)³²⁾’라는 작품에서와 같이 퇴계의 潔身에 대비하여 자신의 탐욕을 반성하고 있는 정조가 제출되기도 한다는 점이다.

30) <漢江送退溪先生已巳三月>, 『孤潭逸稿』卷之一(한국문집총간 영인본 53권 36면).

31) <奉別退溪先生>, 『西厓先生別集』卷之一(한국문집총간 영인본 52권 415면).

32) <仰次退溪先生梅花詩七言絕句八首>, 『存齋謾錄』, 『高峯先生續集』卷之一(한국문집총간 영인본 40권 245면).

IV. 마무리

이상에서 퇴계와 율곡을 대상으로 한 후대의 시편을 셋으로 항목화하여 그 양상과 의미를 살펴 보았다. 생전에 살았던 공간을 읊으며 추념에 젖고 있는 작품군과 現夢을 통한 感發을 노래하는 작품군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퇴를 사이한 번민이 투영된 작품군이 바로 그것이었다. 항목화한 세 범주로 묶인 내부의 작품들은 단성적인 색조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다채로운 정서와 인식이 착색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율곡과 퇴계는 두루 주지하듯 압도적인 자장을 지닌 宗匠이었기에 그들을 대상으로 한 후대의 시편은 양과 질에 있어 탐사가 가능하지 않을 정도로 방대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고는 제한된 편폭 속에 연구자의 시선에 잡히는 몇 항목을 중심으로 소략한 논의로 시종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러한 논의를 통해서도 우리 지성사에서 자리하는 율곡과 퇴계의 위상과 자장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본고에서는 退·栗을 아우르며 후대 시문에서의 형상을 살펴본 바 논지의 설득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퇴계와 율곡이 공분모를 지닌 만큼이나 개아적인 측면도 없지 않았으며 무엇보다도 후학들에 의해 대척적인 지점에 자리하게 강요된 부분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후대인의 시문에 투영된 兩人的 편차에 주안점을 두고 살필 필요가 있는 대목이라 하겠다. 연구자의 시각이 정치하지 못해서 놓친 작품도 적지 않은데, 이에 대해서도 후고를 통해 보완할 예정이다. 특히 南塘 韓元震의 <敬次栗谷先生理氣詠>³³⁾과 같은 작품은, 牛溪 成渾과 율곡 사이에 오고간 이학적 논변을 반영한 <理氣詠>을 유념하며 쓰여진 작품이며, 自註를 통해 理氣說의 관건이 되는 지점들을 정돈하고 있어 그 의미가 다대한 것으로

33) 『南塘先生文集』卷之一(한국문집총간 영인본 201권 18면).

판단되는데 다른 기회에 검토하도록 한다.

참고문헌

- 『古文眞寶前集』, 보경문화사 영인본, 1987. 1-79면.
 具鳳齡, 『栢潭先生文集』 한국문집총간 영인본 39권. 1-247면.
 奇大升, 『高峯先生續集』 한국문집총간 영인본 40권. 1-327면.
 金壽增, 『谷雲集』 한국문집총간 영인본 125권. 129-256면.
 金集, 『愼獨齋先生遺稿』 한국문집총간 영인본 82권. 249-484면.
 柳成龍, 『西厓先生別集』 한국문집총간 영인본 52권. 1-567면.
 민족문화추진회 편, 『한국문집총간 해제 4』, 경인문화사, 2003. 1-526면.
 민족문화추진회 편, 『한국문집총간 해제 5』, 경인문화사, 2003. 1-538면.
 朴世采, 『南溪先生朴文純公文正集』 한국문집총간 영인본 138권. 1-138면.
 朴長遠, 『久堂先生集』 한국문집총간 영인본 121권. 1-505면.
 朴弼周, 『黎湖先生文集』 한국문집총간 영인본 196권. 1-538면.
 成渾, 『牛溪先生集』 한국문집총간 영인본 43권. 1-299면.
 宋時烈, 『宋子大全附錄』 한국문집총간 영인본 115권. 1-597면.
 辛夢參, 『一庵先生文集』 한국문집총간 영인본 158권. 201-334면.
 阿部吉雄, 『日本朱子學と 朝鮮』, 동경대학출판회, 1971, 1-563면.
 李純仁, 『孤潭逸稿』 한국문집총간 영인본 53권. 25-94면.
 李廷馨, 『知退堂集』 한국문집총간 영인본 58권. 1-246면.
 이택동, 「18세기 매화시 연구」, 성심어문논집 26집, 2004, 197-223면.
 이택동, 「기술 서사물의 직조와 전승」, 『한국한문학회연구』 제 17집, 한국한문학회, 1994, 343-369면.
 정명기편, 『東野彙輯上』, 보고서, 1992. 1-821면.
 韓元震, 『南塘先生文集』 한국문집총간 영인본 201권. 1-545면.
 한형조, 『애 조선유학인가』, 문학동네, 2008, 1-398면.
 한형조, 『조선 유학의 거장들』, 문학동네, 2008, 1-430면.

ABSTRACT

Taegye & Yulgok's trace incorporated into future generations of the poetry

Lee, Taek-Dong

Taegye & Yulgok are the leading light in the history of our intelligence and are the future generations who have deep impact. The people for future generations has been submitted to the deep and rich mentions about Taegye & Yulgok. In addition, the full deployment has been a fierce debate on the ground between Taegye & Yulgok.

In the Essay, I clean up a few items and made the meaning about Taegye & Yulgok's trace that incorporated into future generations of the poetry. The works are as follows: The first works recite the space while previously lived in and go to the memories. It's the second works that sing the emotion through appearance in a dream. The third works give a demonstration of social recognition and cultural thought by plum blossoms. Finally, the other works manifest the agony among the resigning and remaining in office.

Taegye & Yulgok's idea and literature gave to the enormous influence and inspiration on the cultural reasons of the future generations. Taegye & Yulgok's trace that be succeeded later ages is one of the passage that understand Taegye & Yulgok. On the history of research about Taegye & Yulgok, if we add this study, will be able to expand the understanding about the history of our intelligence.

Key Words Taegye(退溪), Yulgok(栗谷), the plum blossoms, a dream, resigning and remaining in office

논문투고일 : 2008. 9. 30

심사완료일 : 2008. 10. 28

게재확정일 : 2008. 11. 24